

마법소녀 블로우하트 3화 -한국어

궁지에 몰린 상황. 코코로는 자신의 배를 짓밟고 있는 지클린데의 다리가 눈에 들어온다.

'이 체격이라면 할수 있어...!'



코코로가 자신을 밟고있던 지클린데의 다리를 붙잡고는 지클린데의 뒷다리를 걸어 테이크다운을 시도하자 방심하고 있던 지클린데는 그대로 넘어지며 아킬레스 락을 허용한다.

"큭...! 건방진...!"

하지만 관절기가 미숙했던 코코로의 아킬레스 락은 완벽하지 않았고 몸을 흔들며 기술의 유격을 만들어낸 지클린데가 코코로의 다리를 밀어내며 탈출한다.

비록 완벽한 기술은 아니었지만 먼저 스탠딩 포지션을 잡은 코코로가 유리해진 상황. 마력을 최대한 집중시킨 주먹으로 지클린데를 내려치려할때였다.

"놓치지않아! 마권! 사이닝브...!"

순간 지클린데가 앞으로 내딛은 코코로의 다리를 양 팔로 붙잡고 자신의 양다리를 X모양으로 교차시켜 코코로의 뒤쪽 다리가 앞으로 움직이지 못하도록 고정시킨다.

'옥...! 하반신이...!'

다리의 움직임을 완전히 봉인당해 주먹이 닿지 않게 되어 주춤거리는 사이 지클린데가 교차시킨 다리를 그대로 밀어내 코코로를 넘어트린다. 양다리를 찢기며 주저앉아버린 코코로가 재빨리 거북이처럼 몸을 웅크리면 지클린데가 등 위에 올라타 속삭인다.

"건방진 짓을 하시네요? 언니. 그라운드라면 이길거라 생각했어요?"

"크흑...! 그렇다면...!"



코코로가 등으로 밀어내며 몸을 일으키려하자 지클린데가 코코로의 양다리에 축을 걸어 강제로 벌리게 만든 뒤 중심을 잃고 넘어지는 코코로에게 백 테이크를 시도한다.

당황한 코코로가 몸을 반전시켜보지만 이미 지클린데의 손바닥 위. 코코로의 오른팔을 잡아챈 지클린데가 양 다리를 코코로의 목에 걸고 조르기를 건다.

"저질러주셨네요, 잡몹 언니. 언니 탓에 제 드레스가 흠투성이라고요? 어떻게 책임져주실건가요?"

지클린데의 다리가 조여들자 코코로의 얼굴이 허벅지에 낀 채로 추잡하게 일그러진다.

'우긱...! 케엑...! 숨이...!'

"후훗, 좋은 낫짝이에요 언니♡"

연하의 상대에게 유린당한다는 굴욕에 고통까지 뒤섞여 코코로의 얼굴은 시뻘겋게 달아올라 있었다.

인정 못해...! 블로우하트는 무적이란말야! 누가 너 같은 녀석의 장난감이 될까봐...!

반드시 좇되게 만들어주겠어!

먼저 이걸 풀어내지 않으면...!

다리 그림을 공략할까?

아킬레스 락이 효과가 있었다면 다리에 데미지가 남아있을거야!

차라리 팔 힘으로 벗어날까?

내 힘이면 충분히 들 수 있는 무게고, 보통의 상대라면 이게 정석적인 방법. 거기다 바로 공격으로 전환하면 한번에 역전할 수 있어!

1. 팔 힘으로 들어올려서 내려친다
2. 다리 그림을 공략한다